



경고의 뉴스레터 “나팔”

발행일 : 2015년 9월 발행 (제 65호)

발행 : 경고의나팔 출판

가격 : 프리페이퍼

나팔 HP : <http://www.geocities.co.jp/Technopolis-Mars/5614/>

목차:

- ◎권두 메시지 '다시 십자가에 달리 주' 예레미야
- ◎간증 '일본이 그리스도 교회를 이끌다'
- ◎알림 코너 '신간 서적 소개'

<권두 메시지>

'다시 십자가에 달리 주' 예레미야

이번에는 "짐승의 각인"이라는 주제로 살펴봅시다. 계시록은 종말의 날에 많은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붙이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십자가에 달리 주"라는 테마로 이 것을 보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종말의 날을 예언 계시록은 종말에 주님께서 다시 십자가에 달리 날이 올 것을 예언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11:8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이 말씀을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분명히 알아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주 예수께서 2000 년 전에 지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후 육체를 가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한다는 것은 역사상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여 승천하신 것입니다만, 그 주님이 다시 종말의 날에 지상에 내려와 십자가에 걸리는 등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도 말하고 있지 않으며, 사실 일어나서는 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히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육체를 가지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외의 가능성을 염두에 해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하여, 그 이외의 가능성을 생각할 때, 다음의 말씀이 연상됩니다.

<또 다른 보혜사>

요한복음 16:7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여기서 주님은 또 다른 보혜사 이신 성령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시대는 육체를 가지 신 예수님의 시대보다는 또 다른 보혜사 이신 성령의 시대입니다. 따라서 교회 시대의 끝, 종말의 날에 다시 십자가에 달리 주로는 육체를 가지 신 예수님보다는 주님의 영 이신 성령 간의 문제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형태로 예수의 생애>

주님은 요한 복음에서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 및 또 다른 보혜사 (성령)라는 표현을 통해 자신과 성령의 역사를 대비 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이 두 사람을 성경은 대비 적으로 기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 기록 된 예수의 생애, 그것은 참으로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난 예수의 생애의 정확한 기록인데, 그것에만 머무르지 않고, 그것은 또 다른 보혜사 이신 성령의 미래의 역사와 역사를 예언 한 것이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육체를 갖게 된 보혜사 이신 예수님은 소경의 눈을 열 귀머거리의 귀를 열고 또한 앓은뱅이를 걷도록 치유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다른 보혜사 이신 성령은 교회 시대에 우리의 영의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믿음의 행보 없는 사람을 치유하고 걸을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에서 열린 보혜사로 치유와 사람들을 도왔다 기술은 그대로 미래에 관한 예언이며, 또 다른 보혜사 이신 성령이 교회 시대에 어떻게 우리를 돕고 저장하고 힘 주시는지를 미리 말하고 예언 한 설명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또 다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에 기록 된 예수의 생애의 역사, 그것은 나사렛 예수의 생애를 정확하게 기록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에 그치지 않고, 또한 미래의 교회 시대에 성령이 받는 대우 걸음 역사를 예언 한 것이기도 하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보혜사 이신 예수님의 생애는 어떤 것이었다 있을까요? 예수님의 사역은 군중의 열광적 인 환영에서 시작합니다. 4000 명의 급식 5000 명의 급식의 이야기에서 엿볼 수 있도록 많은 군중이 때를 지어 예수의 이야기를 듣고 무리를 짓고 그 속에서 예수는 이른바 카리스마적인 인기를 얻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의 후반에 상황은 변화합니다.

서기관, 바리새인에 선동 된 군중은 그 태도를 변화시킬 것. 예수님을 협잡꾼 인 사기꾼이기 때문에 열성적으로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열성적으로 외치는 군중의 비난 속에서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는데 십자가 예루살렘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는 죄인 범죄인 중 한 명으로 계산되어 오명에서 모든 명성을 잃고 목숨을 끊어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예수의 역사에 겹치다>

자, 보혜사 이신 예수님의 생애는 또 다른 보혜사 이신 성령의 생애 걸음 교회 시대의 역사를 암시하고 예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처음에는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맞이한 성령의 역사도 오래 교회 시대를 거쳐 대우가 달라집니다. 종말의 배교의 시대 때에는 성령도 하나 교회에서 쫓겨나 제거되어 가장 뒤에는 그야말로 십자가에 못 될 수 재현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살펴 보겠지만, 많은 성경 말씀은 그런 날이 올 것을 암시하고 예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시대에서 성령의 역사를 살펴 보자. 오순절에 내린 또 다른 보혜사 이신 성령의 영은 당초 초대 교회를 비롯한 교회 안에서 환영하고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 이신 성령 이야말로 교회 사역의 기초이며, 그 도움 속에서 교회 시대는 진행했습니다. 축복 속을 걸어온 것입니다.



동성 결혼을 축복하는 목사 : 배교는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교회 시대도 거의 끝 최근 1~2 세기 동안 조금씩 교회 분위기, 상황이 바뀌어 왔습니다. 귀신의 역사가 교회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현재 오순절 계통의 교회에서 불을 일으키고 있는 성령의 세 번째 물결, 토론토, 펜사콜라 부흥 등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보다는 귀신의 부흥입니다.

<악령을 묶는다>

그 운동 속에서 자꾸 "귀신을 묶는 '라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기우 없다면, 중 나쁜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라고하면, 지금이 부흥에 들떠 귀신을 묶고 있는 (가는) 사람들은 모두 귀신을 묶는다며 다름 아닌 성령을 전하는 일에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강한 사람을 묶는 '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12:29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강한 사람이 지키고 있는 집에 침입에는 먼저 강한 사람을 달기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때 성취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시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의 집은 강한 사람이다 예수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집에 押し入ろ려고 한 사탄은 먼저 강한 사람 예수를 묶은 것입니다. 다음의 말대로입니다.

마태복음 27:2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 주니라

이렇게 강한 사람 예수는 사탄의 책략에서 묶여 다음이 하나님의 백성은 사탄의 유혹에 휩쓸리게 됩니다. 그들은 미혹 속에서 스스로 지배자 인 로마의 나라를 대적하고 반역하고 그 결과 로마의 군대에 공격 할 수 자멸하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마지막 한 명까지 로마에 의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지켜 주신 강한 사람 이신 예수를 묶는 결과 사탄의 미혹 속에서 자멸하고 말았습니다.

같은 의미에서 지금 오순절 계통의 교회에서 성행하고 있는 '강한 것을 묶는 귀신을 묶는'는 행동은 어느 배도 교회에서 오용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성령을 전하는 일에 이행 해가는 것입니다. 다음 히브리서의 말씀은 그 날을 암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히브리서 10:29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10:30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여기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간주 은혜의 성령을 멸시하는 사람"에 대해 예언적인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오순절 계통의 교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부흥 운동에서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날 배도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표적과 기사에 현혹되지 귀신을 받아들이고 결과 판단력을 잃고 다름 아닌 성령을 귀신이라고 묶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간주 은혜의 성령을 멸시자"는 그런 착각 한 그리스도인을 표현하는 단어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명, 세 명으로 나뉘어 싸우다>

성령이 지상에 내린 경우에 교회는 어떤 상태가 될 것인가? 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 해피 해피 교회가 되는 것입니까?

아무래도 그렇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성령의 불이 내릴 때 땅에 분열, 다툼이 일어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누가복음 12:49 ○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12:50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12:51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라

12:52 이 후부터 한 집에 다섯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돌과, 둘이 셋과 하리니

12:53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미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주님은 성령의 불이 지상에 내릴 때, 그것은 평화와 일치를 가져 오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분열과 다툼을 가져다 말했다. 이 것은 사실입니다. 오순절에 내린 성령은 당시의 하나님의 백성 인 유대인들 사이에 평화와 일치보다는 분열과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십이 사도를 비롯한 사람들은 이 영혼을 하나님의 영으로 받은 축복을 받았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영을 받지 않고 이단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으로서 사도들 박해했습니다. 확실히 불이 내렸다 위해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나뉘어 싸우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스테반의 순교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종말의 날에도 일어난다 것입니다.

종말의 날에 하나님의 영이 내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의 백성 인 신약 교회의 분열과 내분과 싸움입니다. 다음과 같이 그 싸움의 날 예언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3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6:4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여기에 쓰여져 있는 "불 같이 붉은 말"은 오순절에 내린 성령처럼 종말의 날에 내리는 하나님의 영이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 영이 내렸다 결과는 평화도 일치이기도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분열과 다툼과 그리고 살인입니다. 왜 이렇게 되는가? 그것은 한쪽이 성령도, 다른 하나는 귀신이므로, 그 사이에는 미움, 열룩이나, 그리고 살인까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다음의 말씀도 그 날을 예언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3:12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13:13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성령이 내리는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 교회에서 형제가 형제를 호소 서로 있게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종말의 날에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과 악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과 심각한 충돌, 또한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고소하거나 체포되는 날, 고난의 날을 예언하고 있는 입니다. 다음 예언의 성취의 날입니다.

마태복음 10:25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성령은 쫓겨 나가다>

이러한 영적 싸움이나 호소 서로 통해 중 성령은 배교의 교회에서 쫓겨 나가게됩니다. 다음의 말씀과 같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6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아나니

2:7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여기에는 배교가 일어날 것, 즉 교회가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날이 올 것을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적 그리스도를 "만류하는 것" 즉 성령이 "제거 될 때"가 올 수 예언되어있는 것입니다. 마치 음주 도박 좋아하는 불량한 부인을 쫓아 점점 더 타락 생활에 깊게 들어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배도의 교회는 마지막으로 본말 전도하고 최후의 보루입니다 성령을 스스로 쫓아 내도록 되는 것입니다. 결과 교회는 점점 적 그리스도의 미혹에 들어갑니다.

다시 말하지만, 종말의 날에 성령은 제거되어 교회에서 쫓겨나 배제되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그렇게 말씀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쫓겨나라는 것은 그 날의 재현이기도 합니다. 그 날은?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의 수도 인 예루살렘을 쫓겨나

도시 밖에서 군중의 비난 속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한 날 바로 겹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종말의 날에 교회에서 쫓겨나 관해서는 다음의 말씀도 그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3:20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일곱 교회의 마지막 교회 말세의 교회 인 라오디게아에서는 이제 주님은 하나님의 집이다 교회는 Emacs 에 밖으로 쫓겨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 밖에 쫓겨나 주님의 모습, 그것은 마지막까지 적 그리스도의 침입을 방지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백성에 의해 귀신 취급되어 묶여 "제거하는" 성령의 모습 그 자체입니다. 여기에서 교회 시대의 7 번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주님은 육신을 갖게 된 주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 시대의 끝은 육체를 가지 신 주님은 등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것을 쫓겨나면서도 게다가 종말의 날 배교의 교회의 문을 노크 계속 예수의 영 이신 성령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다시 십자가에 달리 주>

이러한 배교의 날을 거쳐 결국 교회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같은 모독에 들어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리는 것이 처음 계시록의 말씀 인 것입니다.

옛 날 나사렛 예수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유다의 중심지 인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십자가에 못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재현 신약의 끝에서 주님의 영, 성령은 쫓겨 십자가에 못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성전 인 교회는 붕괴 적 그리스도에 석권되고 배도 기독교인은 666 짐승의 표가 밀리 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재앙이 교회에 임하는 것이고 없는 것도 이유가 없는 것도 없다. 교회는 배교의 당연한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짐승에 석권되어 가는 이 명확한 미래를 제대로 봐야 합니다.



동성애의 집회에 반대하고 체포되는 Repent America 그리스도인 회원 : 11 명 멤버 모두가 최대 47 년의 징역 9 만 달러의 벌금을 구형되고 있다.

일본이 그리스도교를 리드한다

이번 토요일 제자 모임의 추천으로 배운 것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기독교는 서양에서 온 것입니다, 현시점에서 일본은 기독교 인구가 매우 적기 때문에 일본 그리스도 교회를 이끌어가는 따위는 믿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이번 성경 구절이나 메시지를 통해, 그렇지 않다, 중 일본이 리드 해 나가는 것을 본 렘넌트 교회에서는 이해했으므로 ... 그리고 꼭 알아 주셨으면 있었으므로,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합니다. 또한 여러분도 무관 한 일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시면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레미야 목사가 메시지입니다.

창세기 49:1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야곱" 나중에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그 후, 12 지파가 되어갑니다. 이 부분에서는 각 부족의 예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유다'에 대해보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49:8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비의 아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49:9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이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 갔도다 그의 옆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유다의 기호는 "사자"입니다. 덧붙여서 천황은 유다의 후예입니다. 또한 "사자"라는 말씀입니다 만, 일본의 모든 것은 "사자"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문명 개화를 계기로 순식간에 일본은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웅크"고 있듯이, 그러한 일면도 있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하고, 원전 사고가 발생하거나합니다.) 또한 지금 현재 일본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싸움에 현재는 못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예언에 따르면한다면 어느 본래의 사자의 일에 돌아갑니다. 용사로 일어서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때에 일어난다 고 생각됩니다.

49:10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왕권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라고 합니다 같이 열두 지파의 왕족은 "유다"에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백성은 그를 따르는"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있도록 선도적 인 입장에서 서 있습니다. 덧붙여서 계시록에는 "또 하나의 천사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안쪽에서 올라왔다."고합니다. 그 때 "왕권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다"라는 말씀이 성취합니다.

또한, 몽골, 중국, 한국, 대만, 일본은 12 지파입니다. 그리고 리더는 일본에서 시작합니다. 즉

일본이 그리스도 교회의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지팡이"는 교사의 비유입니다. '성'은 '메시아'의 것으로, 이것은 그리스도의 첫 강림 성취했습니다. 즉 종말의 성령의 역사는 일본을 통해 오는 것입니다.

49:11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당나귀"성령의 비유입니다. "포도"도 "성령"에 관한 말씀입니다. "기모노"는

"의로운" "정확성"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즉 "유다"(일본)는

죄와 행동을 성령으로 정결케하는 것입니다. 행동이 성령으로 제대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9:12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리로다

"포도주"도 "성령"의 비유에서 "우유"는 "말씀"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종말의 일본에 관한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유다 (일본) 성령과 말씀에 관한 일을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상 만보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에 이런 날이 온다는 것을 기대 봉사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일본이 유다 지파의 사자임을, 그리고 중 세계 교회를 리드하는 입장에 돌아가는 것을 다소나마 이해하실 것 같습니까?

여담입니다만 ... 예레미야 목사가 "현상 만보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에 이런 날이 올 것을 기대 봉사하고 싶습니다."라고 알려져 있듯이,이 렘넌트 교회는 그 수에 앞서, 안 믿는 분들을 위한 '월간 바이블'라는 것을 발행하여 여전히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뉴스 레터 안 믿는 버전이라는 스타일이 있지만, 매달 1000 부 가량 인쇄 우체통에 하거나 친척이나 친구 또는 지인에게 보내거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일본이 중 일어나 그리스도에 되돌아 간다는 것을 상징 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젠가 하나님께 쓰임 받고 한 사람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 받도록 바라면서 사역에 힘 쓰고 있습니다. 확실히 현재 만 본다면 그런 날이 올 것 이별로 감이 오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성경에 예언되어있는 이상 반드시 그런 날이 올 것이? 라는 것을 저희 교회에서 이해하고 있으며, 또한 믿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괜찮으시면 이러한 것을 이해하실 수 있으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지금은 영적으로 잠든 사자 (일본)가 모두 전 세계의 교회를 이끌 수 있습니다.